

# 예산 과다 편성 세수결함 우려

## 대구시 내년 500억 부족 예상...세입확보 대책 필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목표설정에서 따른 사업 추진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동 전문위원은 11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500억원의 세입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세입부족은 △지난년도 수입에서 150억원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년도 수입'은 매년 징수액이 230억원~240억원정도 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목표액을 425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연말까지 징수액이 241억원에 불과해 184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내년도의 '지난년도 수입'을 398억원으

로 편성해 놓아 150억원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순세계 잉여금도 최근 3년간의 발생액을 감안해 내년도에 1천1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 실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은 754억원으로 345억원의 결함이 발생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무려 66.4% 증액된 3천 838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과 주택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부

동산교부세가 신설되고 내국세가 전년도보다 10.5%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목표액 1천948억원 25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교부세 등의 신설이 있다 하더라도 1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구자동 전문위원은 "부족재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